

## 오늘의 말씀묵상

본문 : 로마서 8:1-11(현대인의 성경)

### 1. 말씀

-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.
- 2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.
- 3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.
- 4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.
- 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.
- 6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.
- 7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.
- 8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.
- 9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.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.
-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.
- 11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.

### 2. 관찰

-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?

→ \_\_\_\_\_

-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?

→ \_\_\_\_\_

### 3. 메시지

- 바울은 "그리스도 안에" 있으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?(1절)

→ \_\_\_\_\_

- 왜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못한다고 말하나요?(3절)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나요?(3절)

→ \_\_\_\_\_

-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나요? (5-8절)

→ \_\_\_\_\_

- 여러분의 일상에서 "육신의 생각"과 "성령의 생각"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?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

→ \_\_\_\_\_

- 지금 나는 어떤 부분에서 "율법적 노력"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키려 하고 있나요?

→ \_\_\_\_\_

-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, 그분을 통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가요?

→ \_\_\_\_\_

### 4. 적용

-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?

→ \_\_\_\_\_

- "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"이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, 직장,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?

→ \_\_\_\_\_

### 5. 묵상 나눔(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임)

니다.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,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 
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)

롬 8:1-11(영에 속한 사람)

“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”의 말씀을 통해,  
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습니다.  
이제는 성령이 옛 본성보다 더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본문은  
죄를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과는 달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, 이러한 하나님의  
뜻을 알고 순종하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육신의  
생각은 하나님 없이 경건한 목적들을 성취하려는 교만이라는 사실, ‘나는 할 수 있다’는  
굳건한 자세와 개인주의는 비즈니스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, 영적 생활에는 전혀  
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는 육신의  
생각은 고상한 소망일 수는 있지만, 옛 본성의 방식으로 변할 수 없는 어리석은  
사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‘그리스도 안에서  
자유’를 얻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 
바울의 말씀에,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.  
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충만, 순종 충만하길 소망합니다!

## 6. 기도